

위험하다니까... 의사가 권하니까...

“노령 초산모 분만 제왕절개 능사 아니다”

임신중독·진통시간 등 나이와는 무관
산전검사 통해 정상분만 유도 바람직

상당수의 산모들이 30살에서 조금만 지나도 나이가 많아서 첫 아이를 낳는 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한다. 특히 35살이 지나면 아예 정상 분만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산모나 의사의 단순한 걱정이나 염려에서 비롯되고 있을 뿐 나이가 정상 분만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제왕절개가 성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양대 의대 산부인과 박문일 교수팀은 지난 83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10년 동안 한양대병원에

서 아기를 낳은 1만5천4백60명의 산모 가운데 35살 이상의 ‘노령’ 초산모 6백8명을 대상으로 제왕절개술과 산전 합병증의 빈도를 조사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국내 노령 초산모의 제왕절개수술 빈도는 전체 6백8명 가운데 3백27명으로 53.8%를 기록해 40% 남짓의 세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 또한 ‘노령’ 그 자체가 전체 3백27건 가운데 1백57건, 48%로 나타났다.

반면 합병증은 고혈압성 질환이 15.3%, 양수가 미리 터지는 조기 양수파막이 13.7%, 태반이 앞으로 쏠리는 전치태반이 2.3%, 태반이

앞당겨 분리되는 태반조기 박리가 0.8%를 차지해 35살 미만의 대조군이 각각 보인 5.3%, 7.0%, 0.8%, 0.2%보다 2~4배 많았다.

박문일 교수는 “산모측에서 우선 겁을 먹는데다 의사들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피하려고 나이가 든 산모들한테 제왕절개를 필요 이상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고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있고 조산의 확률 또한 2배 정도 높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조차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풍토는 문제”라고 말한다. 연구팀은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일반적으로 임신기간에 의사와 밀접하게 상담을 하고 임신 말기까지 더 잘 적응한다고 밝히고, 태아의 심장박동검사와 자궁수축검사,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태반의 이상을 살피는 도플러검사 등 산전 검사를 통해 정상분만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병원 조종연 박사팀이 지난 87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이 병원을 찾은 노령 초산모 1백11명과 그렇지 않은 1천87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노령 초산모와 35살 미만의 초산모 사이에 임신중독증이나 진통시간, 태어난 아이의 몸무게 등에 근본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

에서 임신중독증은 노령 초산모 5.6%, 대조군 6.6%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자궁근종은 노령 초산모 4.6%, 대조군 0.5%로 노령 초산모쪽이 높았다. 정상분만한 산모의 평균 진통시간 또한 노령 초산모 8시간58분, 대조군 9시간16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가 많은 산모는 몸무게가 가벼운 아이를 낳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신생아 평균 체중도 3.14kg, 대조군 3.47kg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조 박사는 “나이가 많다고 지금처럼 고위험 임신의 범주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 분야에서 보다 많은 전향적인 연구들이

35살 이상 된 산모의 ‘노령’ 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입견과는 달리 아기나 산모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이유없이 제왕절개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나와 나이 들어 출산하는 산모들의 모자보건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 산모는 62~76년까지는 0.21%에 머물렀으나 76~78년 1.39%, 81~83년 1.69% 등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산부인과 학회는 밝히고 있다.

이재혁 기자

